

지구와 달

글 | 송지혜

그림 | 조예원

글 | 송지혜

그림 | 조예원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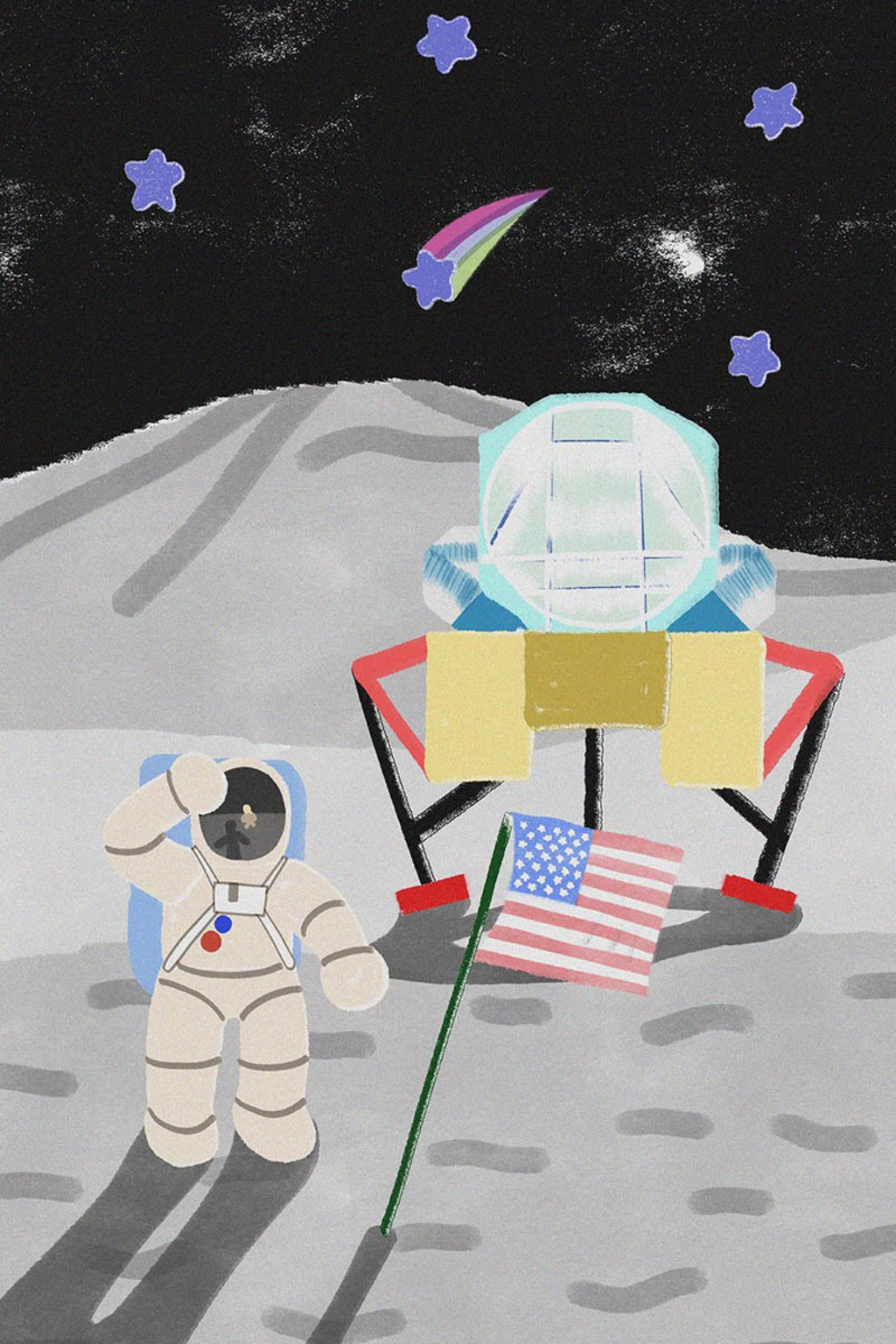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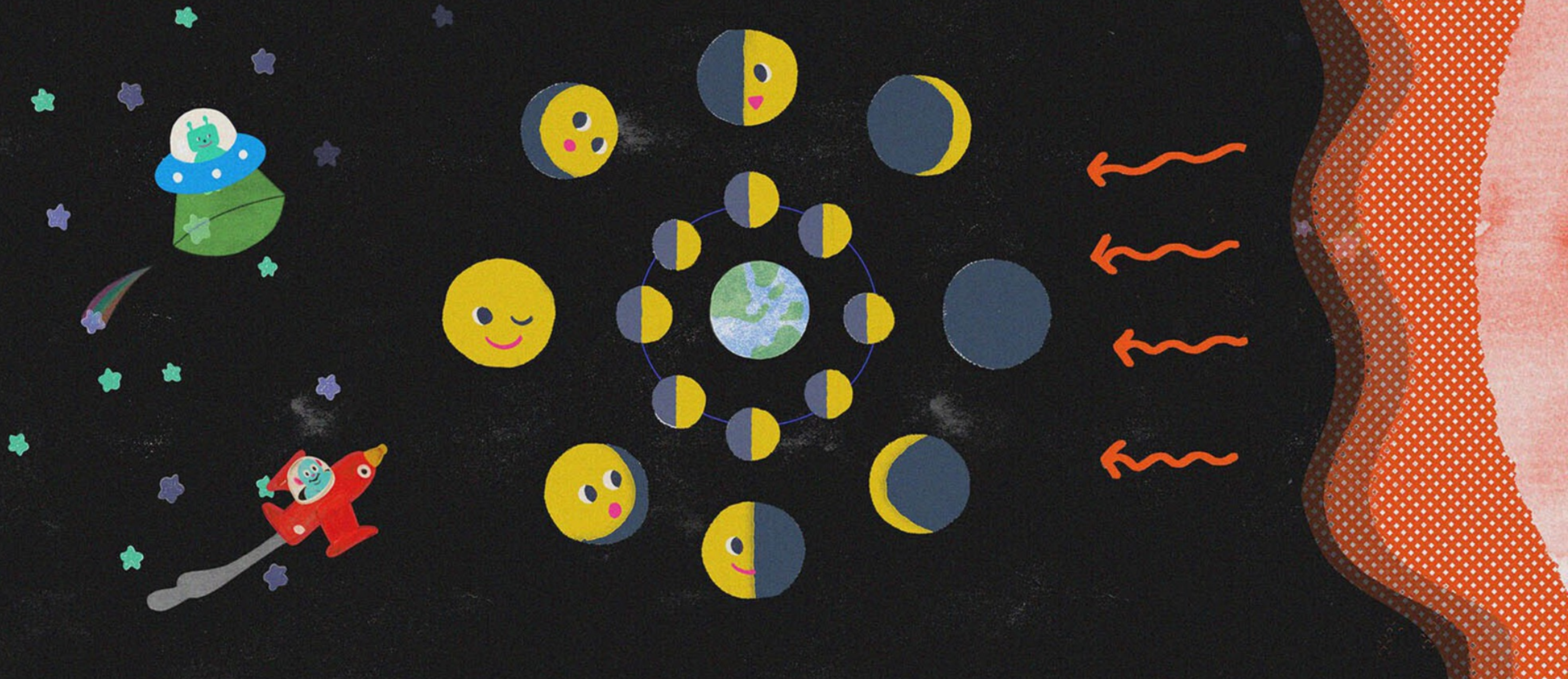
깜깜한 밤을 환하게 비추는 달.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요.
달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저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에 불과하지요. 그럼 달이 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을 받아 빛을 튕겨 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는 항상 같은 모습인데 달은 왜 달라지는 걸까요?
지구와 달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되었지요. 이 때문에 햇빛을 받는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달의 한쪽 면이 모두 햇빛을 받으면 보름달,
반쪽만 햇빛을 받으면 반달, 그리고 햇빛을 하나도 받지 못 하면
모습이 보이지 않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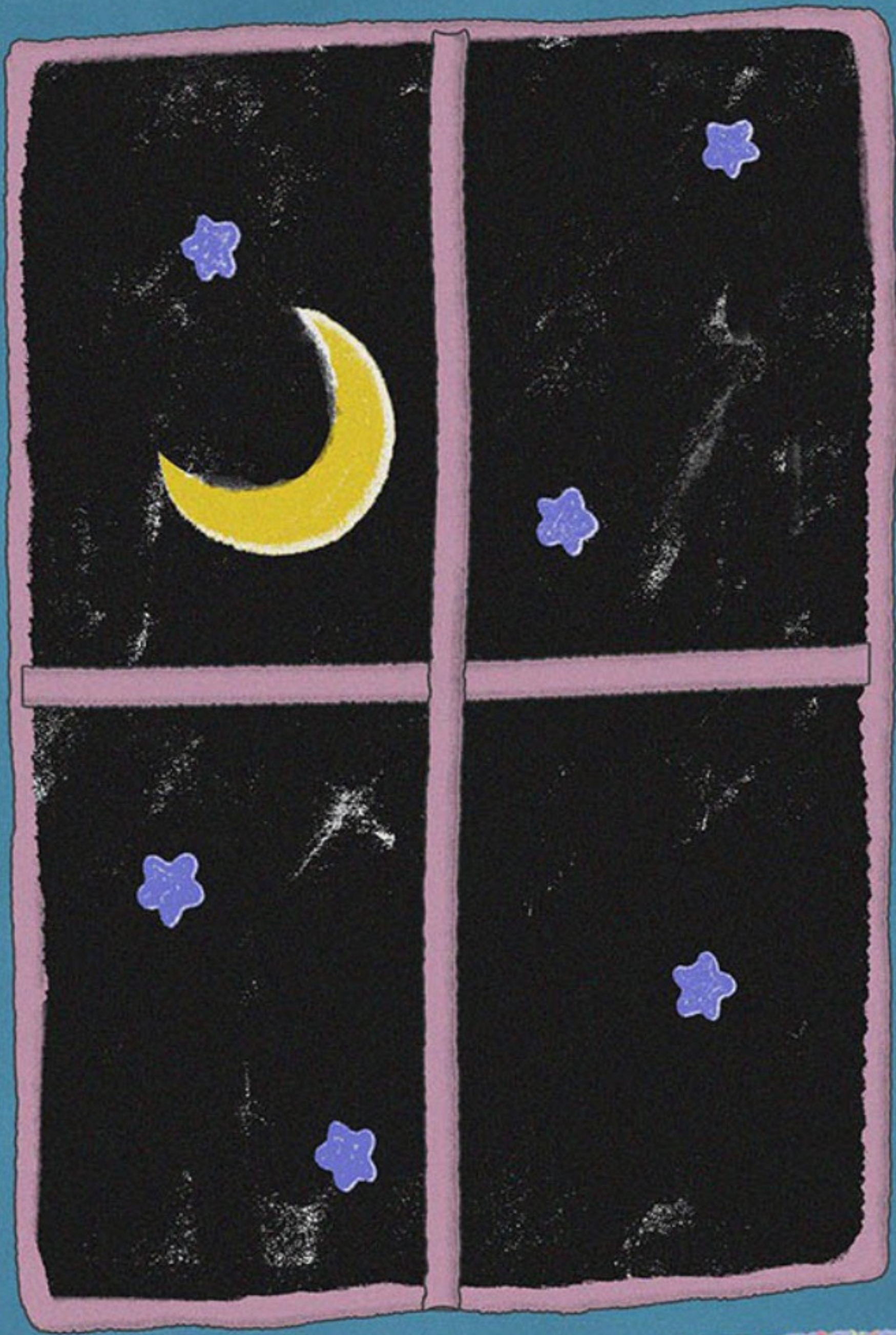
달은 자신의 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바닷물을 움직이기도 하지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며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높아지고 낮아지기를 반복해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은 이러한 바닷물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야 제때 배를 띄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달이 끌어당기는 힘을 약하게 받는 곳은 바닷물이 빠져나가 갯벌이 드러나요. 이곳에는 조개, 게, 낙지, 짱뚱어 등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지요. 날아가던 새들도 이곳에 들러 쉬거나 먹이를 잡아먹는답니다.



달과 지구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가족과도 같아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오늘 잠들기 전, 달에게 인사를
건네 볼까요?



“지구와 달”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